

Diary of hope

새로운 발 디딤

고등학생 시절 한양대에 입학하  
기만을 기대하고 달려오며, 관객으  
로서 한양대 정기공연을 관람했습  
니다. 객석에서 공연을 관람한 것  
이 엇그제 같은데, 얼마 전 관객이  
아닌 재학생으로서 정기공연 무대  
에 섰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  
니다.

입학 후 일 년의 시간동안, 내가  
그리도 소망했던 이곳에서 무용을  
배우고, 캠퍼스 생활을 하며 많이  
배우고 느끼는 한 해였습니다. 존경  
하는 교수님과 강사 선생님들께 지  
금까지 배워왔던 것보다 더 깊고  
폭 넓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.

이제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생활

을 나아가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 
시점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  
해야겠다 다짐합니다.

올 한 해 대학생활은 고등학교 때  
와는 달리 스스로 알아서 행하도록  
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계기  
가 되었습니다.

영원할 것만 같았던 새내기생활  
이 이제는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시  
점에서 새로 입학하는 새내기 후배  
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선배가  
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, 자랑  
스러운 한양인이 되도록 항상 노력  
하겠습니다.

-16학번 이솔지

또 다른 시작을 꿈꾸며...

2013년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한양  
대학교 무용학과를 입학한 것이 엇  
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  
이 흘러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.

4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면서 슬럼프  
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모  
든 것이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원  
동력이었습니다. 1학년 때 '신화상  
생- 두 번째 이야기' 공연과 동기들  
과 함께 한 정기공연, 2학년 때는  
창작발표회, 3학년 때 '축제 70' 공  
연 그리고 대학생활의 마지막 4학  
년 때 졸업발표회를 끝으로 참 많  
은 공연경험을 함으로써 많이 배울  
수 있었습니다. 대학교를 입학하기  
전, 대학 캠퍼스의 로망이었던 동기  
MT가기, 도서관에서 공부하기, 잔  
디가 깔려있는 노천극장에서 날 좋  
은 날 친구들과 배달음식을 시켜먹  
으며 놀기, 미팅하기, 밤새 무용실

에서 무용하기 등을 해보며 좋은  
추억을 많이 쌓았고 너무나 소중한  
4년이었습니다. 지금도 동기들과  
의 4년을 생각하면 행복하고 아쉬  
움의 눈물이 흐릅니다. 4년이라는  
뜻 깊은 시간을 이 짧은글에 담기  
는 힘들지만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 
시간들이었습니다. 이제 각자의 멋  
진 길로 또 다른 시작을 할 동기들  
이 한양인으로서 자부심을 잃지 않  
고 어디서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  
갔으면 합니다. 때가 되면 다시모여  
행복했던 우리의 대학생활을 추억  
삼아 이야기 할 수 있는 그 날이 오  
기를 바랍니다.

그동안 많은 이해와 배려해주시  
고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과 선생님  
들 그리고 선배님들 동기들 후배  
들! 정말 감사했습니다.

-13학번 진솔

또 다른 시작을 마무리하며...

2012년, 한양대학교에 입학하여  
새내기로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글  
을 썼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, 어느  
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학부생  
이 아닌 KUM Dance Company 단원  
으로써 글을 쓰게 되니 감회가 새  
롭습니다. 학부를 졸업한 후, 석사  
과정 그리고 KUM Dance Company  
단원으로 한양대학교를 다닌 다는  
것은 저에게 또 다른 도전이자 시  
작이었습니다.

새로운 시작에 앞서 단원으로써  
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 
에 대한 두려움도 많았습니다. 하지  
만 저의 걱정과 달리 선생님들, 선  
배님들의 가르침과 많은 관심과 격  
려로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  
니다.

한해를 마무리하며 되돌아보니  
많이 서툴렀던 저였지만 그럴 때마  
다 응원해주고 도움을 주었던 선생  
님들, 선배님들 그리고 동기들에게  
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. 제가 어  
려워할 때 도움을 받고 힘을 낼 수  
있었던 것처럼 저 또한 새로운 시  
작을 하는 후배들에게 힘이 될 수  
있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.

마지막으로 항상 많은 가르침과  
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주신 김운미  
학장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  
니다.

2016년, 서툴렀지만 많은 것을 배  
울 수 있었던 한해였습니다. 2017년  
도도 뜻 깊은 한해가 되길 바라보  
입니다!

-쿰댄스컴퍼니 강소연

2016 김운미 교수님 동정

한양대학교 예술체육 대학 김운미  
학장은 2016년 8월, 학장 연임과 더  
불어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. 10월  
5, 6일 양일간, 무용역사기록학회(공  
동회장역임) 주최로 진행된 제18회 '근  
대무용가 최승희 춤의 국제성' 학  
술심포지엄이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  
되었다. 이번 심포지엄은 해외 석학  
들의 발제와 함께 한국·중국·북한  
의 최승희 춤 비교시연 등 무용계에  
의미 있는 담론의 장을 만들었다.

한양대학교 우리춤연구소는 지난  
11월 5일, 제10회 국제학술대회 <  
용·복합시리즈 I> 'Arts & technology  
용·복합 교육과 실천을 위한 미래  
담론' 개최하며 동아시아 국가들과  
용·복합사례들을 논의함과 동시에  
문화예술과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 
한 미래의 교육에 방향성을 제시하  
였다. 학술활동과 더불어 올 한해 2  
월, 5월, 8월, 12월 각각 32·33·  
34·35집 우리춤과 과학기술 논문

집을 발간하였으며, 김운미학장 문  
하 박사 졸업생들을 주축으로 이루  
어진 융합공연, '제3회 우리춤포럼-  
우리춤, 역사를 품고 미래를 열다'  
의 본 행사를 개최하며 융합공연의  
장을 마련하였다. 뿐만 아니라 한국  
연구재단 '학제간 융합연구 지원사  
업(씨앗형)'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  
루었다.

또한 12월 12일, 중국 화남이공대  
학교(해외명사(名師) 교과목 학점  
강의 후원 프로그램)에 초청되어 중  
국 무용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<한  
국 문화, 몸으로 알다>라는 이론적  
인 내용과 함께 한국의 전통춤에 대  
한 실기교육을 병행하며 전문성을  
더했다. 우수한 국제문화교류 활동  
으로 화남이공대학교에서 명예증서  
를 수여하며 예년과 같이 지도자로  
서의 진면목을 보이는 동시에 다양  
한 결실과 성과를 거두며 풍성한 한  
해를 마무리했다. -박태운 기자

HKJ 만든 사람들 ♡



HKJ(Hanyang Korean dance Journal)

HKJ는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무용계의  
우체통이 되고자 합니다.  
여러분들의 후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

<후원금계좌번호안내>

국민은행 : 박진영(HKJ신문)  
280601-04-164329

E-MAIL : kip1004@nate.com /  
andydwodms@naver.com

QR코드로 만나는 HKJ와 KUM dance company



HKJ QR 코드



KUM QR 코드